

친츠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 칠 순 · 정 희 승*†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 전공/디자인 연구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디자인교육 전공*

A Study on Chintz Pattern Design

Chil-Soon Kim and Hee-Seung Ch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extile & Clothing Design/Design Research Institute, Kyunghee University
Dept. of Design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2003. 2. 20. 접수; 2003. 7. 2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the development of Chintz pattern design through fashion history, and to focus on its application in modern times with special emphasis on filtered Chintz patterns. Chintz patterns use such motives as tree, animal, bird, and geometrical shapes, etc.. It reached the peak of its popularity with William Morris. His influence continued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rough to the 20th century. Modern Chintz designs have been modified and diversified in different cultures through time, and such diversification & changes can be easily found in modern fashion. From previous studies and other related sources, we found that Chintz patterns were revived in modern fashion trends with some modification. We also discovered the importance of chintz pattern designs in ethnic and retro trends. Thus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e significance, flexibility, and lasting popularity of Chintz pattern designs in fashion history.

Key words: Chintz(친츠), pattern designs(패턴디자인), retro(레트로), William Morris(윌리엄 모리스)

I. 서 론

인간의 장식에 대한 욕구에서 생성된 패턴은 모든 시대에서 생활과 직결된 존재였으며 각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결과물로서 가치를 갖는다.

친츠(Chintz)는 고대 인도의 다양한 염색 직물 중

하나로써 동·식물 문양, 기하학적 무늬를 소재로 패턴화되어 나타났으며, 탁월한 색상과 광택으로 유럽인들을 자극하여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친츠는 B.C. 400년경에 주류를 이루어 실크로드를 통한 활발한 교역으로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직물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A.D. 2세기경에는 아랍 교역자에 의해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특히 19세기 영국 윌리엄 모리스의 친츠를 통해 패턴 디자

† 교신저자 E-mail : heeseung74@hanmail.net

1) Kichang Han, *Tchit, Chitte, Chintz* (ENSAD, 1996), pp.1-131.

인으로서 절정에 달했으며, 현재는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절충된 형태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Kichang Han¹⁾은 친츠를 4세기 동안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지배한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보았다. 전통 인도 친츠는 긴 역사의 흐름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패턴으로 흡수, 동화되었기에 본질적 의미가 변질되었지만 현재는 엑조틱(exotic)한 분위기의 패턴화된 직물들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친츠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Yuko Tanaka²⁾는 친츠를 비교 문화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이경희·정혜민³⁾은 윌리엄 모리스 패턴 디자인에 대한 특성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미의 원리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전통 친츠 고찰에 편중되어 현대 친츠의 의미나 활용은 간과하였다. 현재 친츠는 패션을 통해 그 직물이 수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를 절충하여 대중에게 널리 표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디자인 컨셉으로 에스닉(Ethnic), 레트로(Retro)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하고, 특히 보헤미안(Bohemian)적인 요소가 2002/03년 S/S, F/W에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전통 친츠 패턴의 재검립과 패션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된 친츠 패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츠의 어원을 찾아서 개념을 정립해 보고, 전래 과정을 고찰해 보며 친츠 활용 영역을 확장하여 현대 의상에서 보여지는 친츠 패턴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친츠를 추출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친츠 패턴을 논의해 보고, 이러한 패턴의 생성 과정과 트렌드를 이해함으로써 현대 패션에 응용 가능한 참고자료를 수집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 범위는 근대를 기점으로 전통 친츠와 현대 친츠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근대 이전의 전통 친츠는 서양에서 교역 대상인 인도 원산 염색 직물로 인

식되어 그 활용 영역이 제한되어 있었고, 18세기 말부터 유럽 의상에 친츠 패턴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고대부터 근대까지는 전통 친츠로 분류하여 개념과 전래 과정을 다루었으며, 18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서양 의상에 나타나는 현대 친츠를 논의의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추출하여 패션에의 적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학술지, 삼성패션연구소 내 포럼 자료, 국내·외 패션 정보지 등의 문헌 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시각 자료 수집을 통해 고찰하였다.

II. 친츠 고찰

1. 친츠의 일반적 개념

친츠는 고대 인도에서 생산된 인도산 날염 직물의 이름으로서 'Chint', 'Chinte', 'Chite', 'Chitte', 'Chit', 'Chhir', 'Chintz' 등 다양한 어휘들을 포함하며, 'Pintados', 'Tchintz', 'Paint and printing'이라는 뜻으로 인도에서 그려지고 만들어진 천들을 의미한다. 친츠의 어원은 힌두어인 'Tchit'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얼룩진'이라는 뜻을 내포하며 이 단어의 어휘는 인도 지방 도시인 Mahratte의 사투리인 'Tchint', Sanscrit의 'Tchitra'에서 유래되었다⁴⁾.

친츠의 개념은 문헌 자료를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첫째, 인도 친츠에 근거를 둔 개념으로 주로 큰 꽃, 나뭇가지에 피어나는 다양한 꽃(생명수, Tree of life), 새와 나비 등을 소재로 천연 염료를 사용해서 손으로 그리거나 납방염한 면직물, 또는 직물 전체에 나타난 패턴을 의미한다⁵⁾. 이러한 패턴으로서의 친츠는 각지에 확산되어 각국의 독자적인 패턴으로 발전된다. 둘째, 광택나게 글레이징(glazing) 처리를 한 친츠 가공(chintz finish)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계에 왁스나 풀을 사용하여 세탁에 내구성이 있게 하고, 열 롤러로 누른 광택이 있는 직물 형태를 말한다⁶⁾. 본 연구에서는 친츠의

2) Yuko Tanaka, "A comparative study of textile production and trad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16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osei University, 1995), pp. 23-30.

3) 이경희, 정혜민, "윌리엄 모리스 패턴디자인의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권 1호(2000) pp. 42-50.

4) Kichang Han, *op. cit.*, p. 6.

5) 차임선, *텍스타일 디자인* (서울:예경, 1999), p. 52.

6) <http://www.ourindia.com/defl.htm#chintz>

개념을 첫 번째 서술한 텍스타일 또는 패턴 디자인으로 보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인도로부터 출발한 친츠는 오랜 역사적 교류를 통하여 각국에 전해져 지역 조건, 전통 양식, 민족성에 따라 재창조되면서 현재 일본에서는 사라사(更紗), 이란에서는 칼람카리(kalamkari), 중국에서는 화포(華布) 또는 인화포(印華布)라는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전통적 인도 친츠

인도는 아리아인이 선 주민과 융합하여 특색 있는 문화를 번성시키다가 이슬람교도가 들어옴에 따라 이슬람교적 문화가 번성하였고, 그 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상인에 의해 외부 문화가 영입되었다. 친츠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이집트와 페르시아만으로 교역되었고 동남아시아와도 교역이 성행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유럽인들에 의하여 인도 친츠가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인도의 패턴을 수용한 유럽 장인들은 각 지역에 적합한 친츠를 주문 생산하였다. 17, 18세기에 친츠는 절정에 달하여 자바, 수마트라, 북인도 및 페르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수출되었으며, 1765년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동인도회사(East Indies Company)를 통해 인도 친츠가 영국과 유럽 각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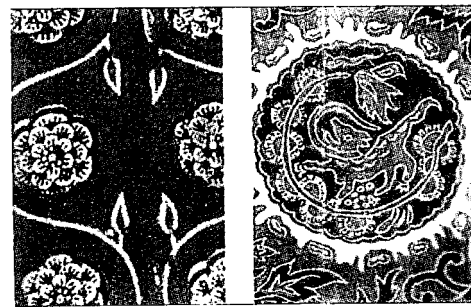
1840년 친츠는 영국 꽃무늬 패턴으로 나타나 최고의 텍스타일로 입증되었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교역의 주요 매체였다. 친츠(Chintzes), 인디니즈(Indiennes), 캘리코(Calicoes)와 같은 인도 염색 직물에 대한 서구인의 기호가 세계 무역을 촉진시켰고 친츠에 대한 수요 증가는 19세기 말 윌리엄 모리스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통 인도 친츠는 식물성 매염제인 타닌산, 동물성 매염제인 카제인, 요산, 광물성 매염제로는 명반, 철을 사용하였으며, 파란색은 남쪽색(Indigo)으로부터 추출하였고 빨간색은 서홍(Cochineal)과 곤충 염료인 암연지 벌레(Kermes)와 꼭두서니(Madder), 노란색은 강황(Turmeric), 검정색은 철(iron), 그밖에 철과 꼭두서니 염료를 섞어 보라색을 추출하였다⁸⁾.

인도 친츠는 바틱염, 판염, 회염법, 납할 등 염색 방법이 다양하다. 바틱염은 여러 종류의 매염제를 사용하여 한 가지 염액 속에 담가 각기 다른 색을 발색하게 하여 각종 문양을 나타나게 하는 전통적 방법이며, 판염은 조각된 목판에 염제를 묻혀서 직물에 눌러 염색하는 방법이며, 회염법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고대 국가 시대에 붓과 같은 것으로 그림을 그려 염색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염색 방법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1>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 친츠의 예로 면직물에 바틱염과 판염으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18, 19세기 이후에는 판염과 회염법이 병행되고 생명수라는 명칭의 작은 나무와 꽃, 초화 등이 염색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 친츠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기계 날염에 의해 제조된다⁹⁾.

3. 윌리엄 모리스 친츠 패턴

19세기는 독자적인 양식의 패턴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양식 중에 장점을 취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강렬한 절충주의 시대로 간주되었다. 처음 80년 동안 대부분의 직물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양식이나 외국 패턴 또는 이들의 혼합을 기초로 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모리스는 중세 영국과 프랑스 미술을 선호하였지만, 그의 직물은 15~17세기 이태리 직조 직물과 후기에는 페르시아와 터키 패턴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1875년 리크(Leek)의 염색 공장에서 토마스 워들(Thomas Wardle)과 함께



<그림 1> 인도 전통 친츠.
(세계의 직물, p.41)

7) 이연순, *직물디자인* (서울:형설출판사, 1996), p. 133.

8) Kichang Han, *op. cit.*, pp. 105-112.

9) 민길자, *세계의 직물* (서울:한림원, 1998), p. 70.

한 작업에서는 작은 패턴 그룹의 규모와 색상으로 인도 직물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나타냈다. 모리스와 워들은 인도와 근동 및 중동을 여행하여 전통 패턴을 수집하고 외국 제조업자와 무역 유대 관계를 신장시켰고 인도로부터 다수의 실크를 수입하여 오랜 전통을 지속하였으며, 이러한 시도에는 선택성과 독창성이 있었다¹⁰⁾.

모리스 친츠는 자연을 직접적 관찰한 결과로써 나무와 꽃, 새, 숲, 벌판, 울타리, 정원을 소재로 취하고 있으며, 이는 유동적인 식물 문양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유기적인 생명체의 참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리스 패턴은 양식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피터 프로우드(Peter Floud)는 다음의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¹¹⁾.

첫 번째 시기(1872~76)는 표면 전체에 완만한 부정형의 곡선을 만드는 구불구불한 선을 기본으로 주의 깊게 감추어진 패턴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시기에 예술적 총체물로 나타나는 성공적인 패턴의 하나인 <그림 2>의 "인동덩굴(Honeysuckle)"은 대칭구조로써 이후 날염 직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기(1877~83)는 구조와 소재에 있어서 형식성에 더욱 치중하게 되어 자유로운 곡선에 의한 자연주의적인 패턴이 엄격하게 좌우 대칭적인 형식주의적 패턴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그 예로써 <그림 3>의 "인디언 마름모꼴(Indian Diaper)"은 마름모꼴 모티프를 내포하며, 그 시대에 수입된 인도 염색 직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현대적인 성격을 띤 혁신적 디자인이었으며 이 시기에서는 동물과 식물 형태를 결합시키고 있다.

세 번째 시기(1884~90)는 형식주의적인 수직 반복 패턴에서 사선 패턴으로 바뀌는 중요한 양식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South Kensington Museum 소장품의 영향으로, 1883년 새로 수입된 이탈리아의 컷 벨벳(Cut Velvet)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사선 방향의 줄기 양측에 꽃을 주의 깊게 배열함으로써 불안정한 대각선 패턴에 안정감을 주었고, <그림 4>의 "원들(Wandle)"에서는 경쾌함과 우아함이

나타났다.

네 번째 시기(1891~96)에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림 2> 인동덩굴(Honeysuckle).
(William Morris:decor and design, p.175)



<그림 3> 인디언 마름모꼴(Indian Diaper).
(William Morris:decor and design, p.175)



<그림 4> 원들(Wandle).
(William Morris:decor and design, p.172)

10) Linda Parry, *직물미술공예운동*, 울산대학교 섬유디자인 연구실 역 (서울:경춘사, 1993), p. 27.

11) 김승자, "William Morris의 텍스타일 작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 25-27.



〈그림 5〉 수선화(Daffodil).
(William Morris: *decor and design*, p.184)

상향 운동하는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주의적으로 그린 꽃과 전통적인 상징과 혼합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는 초기 자연주의에로의 복귀와 역사적 직물 연구에서 오는 형식주의와를 결합하려는 노력으로 여겨지며 〈그림 5〉의 "수선화(Daffodil)"는 친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패턴 중 하나로 평가된다.

모리스 친츠는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목판 날염법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공정 과정은 먼저 염색할 천을 염료 통에 넣어 전체적으로 염색한 후 디자인에 따라 표백제를 사용하여 색상을 열게 하거나 탈색한다. 표백된 부분을 다른 색으로 날염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염제 처리 후, 원하는 농도의 염액에 담그고, 끓는 온도에서 비누 처리하고 밀기울(bran bath)을 통과하여 실외에서 자연 건조시켰다¹²⁾.

Ⅲ. 패션에 나타난 친츠 패턴의 변천

1. 18, 19세기 패션에 나타난 친츠

18세기 초 유럽은 인도와 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 저렴한 면직물을 다량으로 수입하게 되었고 다양한 색상의 내수성이 강한 염료가 개발되었으며, 블록프린트인 목판 날염법의 발달로 면직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반 서민이 오랫동안 입어 왔던 수수한 무지를 탈피하여 화려한 색상으로 프린트된 의상이 대중화되어 보급되는 혁신을 가져왔다¹³⁾.

12) 김승자, *op. cit.*, p. 24.

13) *패션의 역사 2* (라사라, 1992), p. 39.

14) Max von Boehn, *패션의 역사* (한길아트, 2000), p. 71.

15) 정삼호,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1996), p. 141.

18세기 사회혁명이 계몽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면, 경제 혁명은 방직 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당시 로코코 문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무늬의 옷감으로 만든 화려한 옷이 큰 인기를 끌었으나 고가여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저렴한 인도 친츠를 애용하였다.

당시 인도 친츠에 대하여 가장 격렬한 거부감을 표시한 나라는 프랑스였으며, 프랑스 정부는 저렴한 아름다운 무늬와 다채로운 광택으로 날염된 친츠가 자국 실크 산업과 경쟁할 것을 우려하여 방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친츠 사용을 1697년에서 1715년까지 스물 다섯 번 금지 조치하였다. 그러나 옷이나 가구, 벽지에 날염된 친츠 패턴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1760년에 금지령이 해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험가 카사노바(Casanova)는 친츠 생산에 뛰어든 선구자 중의 하나였다. 그는 1759년 복권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염색 직물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패션의 역사는 카사노바를 이 시기 엄직 공장을 크게 한 사업가로 기록하고 있다¹⁴⁾.

18세기 말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중동이나 극동 지방과의 무역을 통해 인도, 페르시아, 중국에서 이국적인 직물을 수입해 왔다. 활발한 교역을 통해 동양 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동양의 직물, 건축, 가구, 도자기 등이 유럽 장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동양 직물의 줄무늬, 꽃무늬는 유럽에서 생산된 실크와 면직물에 재현되었다. 〈그림 6〉은 앙그르(Ingres)의 에프터눈 드레스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자국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 친츠 패턴이 생성되어 유행파인 친츠로 유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친츠는 남자 모닝 가운데나 여자 의상의 소재로써 사용되었다¹⁵⁾.

19세기는 산업혁명의 완성기로서 과학 발달로 왕실과 귀족 중심 패션에서 일반 시민 중심의 대중적 패션으로 전환되었다. 직물 생산의 기계화로 의복 소재가 대량으로 공급되었으며, 19세기 중반에 재봉틀이 발명되면서 기성복 생산과 보급이 추진되었다.



〈그림 6〉 1800년대 앵그르 작,
우아한 프린트의 애프터눈 드레스.
(패션의 역사 2, p.116)



〈그림 7〉 1910년대 뽀와레의 동양풍 친츠.
(Mode Das Jahrhundert Der Designer, p.30)

2.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친츠

20세기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아프리카와 중국 대륙에 대한 식민지 활동과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하여 동양적인 색채와 무늬, 실루엣이 서양 의상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1910년 일본 고유 의상의 화려한 색채와 실루엣이 유럽 여자 의상에 반영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양적인 요소가 의상에 도입되었다. 디자이너 뽀와레(Paul Poiret)는 이러한 사회 풍조를 하이 패션에 반영시켜 대중의 호응을 받게 되어 20세기 모드의 기초를 형성했다. 〈그림 7〉은 다양한 무늬의 패턴 직물인 친츠에 아름다운 색채를 도입하여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20년대 패션에 로맨틱한 친츠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그 예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1930년대는 복식 예술에서 기능주의가 적용된 시기로 합성섬유가 개발되어 의복 소재가 풍부해지는 한편, 직물 가공법과 염색 기술이 발달하여 디자이너들은 〈그림 9〉에서 보여주듯이 다양한 패턴 직물을 이용한 의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

1940년대 복식은 여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그림 10〉과 같은 화려한 의상으로 나타났으며, 1950년대 복식은 〈그림 11〉에서 보듯이 세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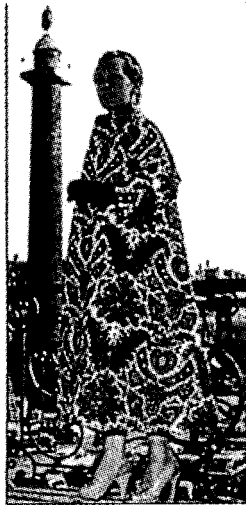


〈그림 8〉 1920년대 로맨틱 룩의 친츠.
(Mode & Mode, p.1)

이즈의 유행으로 상의에 친츠가 표현되었다¹⁶⁾.

1960년대 복식은 에스닉(그림 12), 로맨틱, 페션트 스타일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츠 패턴이 두드러졌다. 특히 '60년대 말 저항 문화로써 발생한 히피 패션은 다양한 이국적인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화려한 꽃무늬로 응용된 친츠 패턴이 여성복에서 남성복에 이르기까지 널리 나타났다. 또한 히피 스타일은

16) <http://hyuni2u.tuhome.com/content1.htm>.



〈그림 9〉 1930년대 의상에 표현된 친츠.
(Mode Das Jahrhundert Der Designer, p.149)



〈그림 11〉 1950년대 상의에 표현된 친츠.
(Mode & Mode, p.16)



〈그림 10〉 1940년대 의상에 나타난 친츠.
(Mode Das Jahrhundert Der Designer, p.207)



〈그림 12〉 1960년대 에스닉 룩의 친츠.
(Mode & Mode, p.7)

하이 패션에 영향을 주어 1967, 1968년의 로맨틱 룩, 에스닉 룩의 유행을 야기했으며, 1968년 이후 패션계의 관심은 과거로의 레트로와 동양으로의 민속풍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복식은 자연으로의 회귀와 여성 운동 등의 확대로 로라 애슐리(Laura Ashley)의 작은 꽃무늬 드레스와 같은 목가적 분위기를 가져왔으며, 히

피 패션의 고전 의상의 영향으로 러플과 레이스 달린 로맨틱 룩, 빅토리안 스타일 등이 등장하였다. 히피는 또한 인디언 풍, 동양 이미지, 남미 이미지 등의 에스닉 룩으로도 복고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이 패션의 패션 트렌드를 민속풍(folklore)으로 이끌었다. 〈그림 13〉은 친츠가 히피 풍 디자인의 한 요소로 적용된 예이다.

1980년 이후의 복식은 지배적인 라인이 없어지고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크게 부각하기 시작한 이컬러지(Ecology)와 새로운 각도로써 나타나는 내추럴리즘(Naturalism)이 1990년대 초 복식에 이어져 나타난다.

1990년대 패션 경향은 이컬러지, 에스닉, 레트로 풍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한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티베트, 몽고에 이르는 동양으로 집중되어 민속 의상이 패션 주제로 등장하였다¹⁷⁾. 로맨틱한 민속풍인 1960년대 히피 스타일은 1990년대에 컨트리 룩, 페전트 룩으로 복고되었으며, 민속풍 패션은 인도 사롱 스커트, 네루 재킷, 차이나스 룩, 티베트와 몽고 스타일, 러시아인 의상, 페이스리 무늬 등 민속적 특성으로 이국적 취향을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민속풍 패션의 예로 <그림 14>는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의 89년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드레스이다. 이 의상에는 붉은색 페이스리 무늬인 친츠가 표현되었고, <그림 15>는 인도 금박 친츠 패턴이 재현되었다¹⁸⁾. 1993년 F/W 컬렉션은 느슨하고 로맨틱한 다양한 색채의 민속풍 페이스리리와 다른 고전 무늬 프린트에서 영감을 받은 소재들

이 부각되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과거에 대한 향수와 동경은 복고풍 패션으로 나타나 레트로 룩을 등장시켰다. 한편, 1998년 S/S 컬렉션에서 로맨틱리즘이 주요 테마로 주목되고 있어 아르누보(Art Nouveau)적 영향이 눈에 띈



<그림 14> 1980년대 에스닉 룩의 친츠.
(세계의 민속복, p.213)



<그림 13> 1970년대 히피 룩에 표현된 친츠.
(Mode Das Jahrhundert Der Designer, p.416)



<그림 15> 1990년대 민속풍 패션의 친츠.
(세계의 민속복, p.1)

17) Fashion Forum (삼성패션연구소, Vol. 7, 1994), p. 10.

18) 간문자, "抵抗패션이 母패션으로 轉移된 현상에 關한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 89.

다. 꽃무늬와 동·식물 또는 곤충이 모티브인 친츠 패턴은 아르누보 의상의 소재로 나타나 현대적인 세련미로 재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16>은 신시아 로리(Cynthia Rowley)의 96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아르누보 패션에 반영된 친츠 패턴의 변형된 예이다¹⁹⁾.

3.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친츠

21세기 패션은 패션 브랜드의 세계화와 아시아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듯 민속풍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헤미안과 에스닉 스타일 등 전반적으로 복고풍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여러 요소가 믹스된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며 여러 나라 의상이 한 스타일의 옷에 나타나는 다국적인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²⁰⁾.

친츠 패턴은 신비적이고 유풍한 모티브로 어느 시대에나 대중에게 친근하게 사용되어 사실적 패턴이나 기하학적 패턴보다 더 다양한 스타일로 복식과 직물에서 꾸준히 리사이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2년에 들어와서 이슬람권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국적인 소재인 친츠 패턴이 세계 각국 컬렉션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친츠는 주로 에스닉한 분위기의 의상과 접목되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반영으로 다양한 지역과 문화가 혼합된 새로운 민속풍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7>은 에트로(Etrot)의 2002/03 F/W 컬렉션에서 에스닉 스타일에 적용된 친츠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추럴리즘이 주류를 이루고, 여성스런 로맨티즘이 유행하면서 부드러운 19세기 자연주의의 새 물결인 아르누보 스타일이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2002년 S/S 트렌드인 보헤미안 룩에서 꽃무늬로 표현된 친츠 패턴이 나타났다.

21세기 프린트 경향은 혁신적인 패턴이 유행하리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으며, 1960, 70년대 풍 복고주의 성향으로 플라워 프린트부터 클래식한 도트, 스트라이프, 인도풍 페이즐리,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²¹⁾의 아트 프린트, 모던한 그래픽 프린트, 애니멀 프린트 등 패션 스타일만



<그림 16> 1990년대 아르누보 패션에 응용된 친츠
(Fashion & Art VI, 아르누보, p.57)



<그림 17> Etro, 2002/03 F/W Collection.
(Collections 2002/03 A/W Milan II, p.134)

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레트로적인 윌리엄 모리스나 로라 애럴리 등의 패턴 디자인을 연상하게 하는 클래식한 플라워, 페이즐리, 가하추상 무늬들을 포함하는 친츠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 친츠는 현대

19) http://norano.co.kr/museum/pbs/present_fashion.htm.

20) <http://www.fck.or.kr>.

21) 기하학적 패턴으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젊음의 에너지가 넘쳤던 1960, 1970년대 복고적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그의 패턴들은 다양하고 화려한 원색을 사용한 마블 무늬로 유명하다.

적 요소와 함께 새롭게 재창조되어 보다 여성스럽고 장식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컬렉션에서 선보인 대부분의 브랜드 의상에 도입되고 있어 화려한 프린트 물결을 이루고 있다.

2003년 S/S 컬렉션에서 구찌의 톰 포드(Tom Ford)(그림 18)와,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그



〈그림 18〉 Gucci, 2003 S/S Collection.
(www.style.com)



〈그림 19〉 Roberto Cavalli, 2003 S/S Collection.
(www.style.com)

림 19) 등의 많은 일류 디자이너들이 동양적인 모티브를 이용한 현대적 감각의 의상을 선보였으며, 특히 기모노 스타일 실크 가운데서 오리엔탈 스타일 꽃무늬, 혹은 용 문양 자수 등으로 친츠 패턴을 표현하였다. 〈그림 20〉은 안나 수이(Anna Sui)의 월페이퍼(wallpaper) 패턴 의상으로 2003년 프린트 경향인 다채로운 컬러와 다양한 패턴의 혼합을 예고하고 있다²²⁾.

IV. 결 론

본 연구는 자연물을 모티브로 하는 현대 패턴의 토대로 볼 수 있는 인도 친츠를 고찰하여 개념을 재정립하고, 친츠 전개 과정에서 하나의 주류로 나타나는 윌리엄 모리스 친츠 패턴을 고찰하여 19세기부터 현대 패션까지 친츠 실례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 전통 친츠는 주로 큰 꽃, 나뭇가지에 피어나는 다양한 꽃, 새와 나비 등의 모티브를 천연 염료를 사용해서 손으로 그리거나 남방염한 면직물, 또는 직물 전체에 나타난 패턴을 의미한다. 친츠는 현재 일본에서 사라사, 이란에서 칼람카리, 중국에서 인화포 라는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0〉 Anna Sui, 2003 S/S Collection.
(www.style.com)

22) "2003 S/S", *Vogue Korea*(2003), 1월 호 참조.

인도 친츠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이집트와 페르시아만, 동남아시아와도 교역이 성행하였고, 16세기에 더욱 세밀하고 우아하게 발전하여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18세기 초 영국에서 염색 기법과 프린트 적응력이 완성되어 1840, 50년대 꽃무늬로 나타난 유행적인 친츠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860년대 디자인과 날염 수준이 낮아져서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²³⁾. 1875년 윌리엄 모리스는 친츠 패턴에 블록 날염법을 도입하여 친츠가 영국 가정에 널리 보급되는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다양한 무늬의 화려한 친츠가 의상에 도입되는 유행을 추구하였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²⁴⁾. 20세기 친츠는 특히 디자인 컨셉으로 에스닉, 래트로, 보헤미안, 로맨틱, 아르누보적인 요소로 대표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21세기 친츠는 다양하게 재구성되어 새로운 문화적 상징으로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인도로부터 출발한 친츠는 그 제작 방법이나 외형이 변화되었지만 다문화, 다국적 특성을 반영하여 혼합된 절충적 형태의 현대 친츠로 재현되어 패션에서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트렌드의 다양화 성향에 편승한 패턴 직물을 선호하는 추세와 이슬람권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패션에 반영되어 오랜 역사를 지니며 꾸준히 사용되어 온 친츠가 더욱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친츠는 주로 학술적, 고증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전통 친츠 연구에 한정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고대부터 출발한 친츠 패턴을 이해하고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현대적 시각에서 친츠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존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 범위에 있어서 친츠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 분야가 아닌 의상에 한정하여 실제 수집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근대 이전의 시각 자료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문헌과 시각 자료를 근거로 주관적인 해석으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점을 밝힌다. 앞으로의 패턴 디자인 연구에서는 고증된 시각 자료 제시와 구체적인 패턴 직물의 형태, 만들어진 연대와 생산지들을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

는 과학적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간문자(1995). "抵抗패션이 母패션으로 轉移된 현상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복주(1981). "William Morris의 Pattern 양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자(1986). "William Morris의 텍스타일 작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패션의 역사 2 (1992). 서울: 라사라패션.
- 만길자(1998). *세계의 직물*. 서울:한림원.
- 박홍규(1998).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서울:개마고원.
- 세계의 민속복 - 인도 (1994). 서울: 삼성패션연구소.
- Fashion Forum*, Vol.7 (1994). 서울: 삼성패션연구소.
- Fashion & Art VI 아르누보, 아르데코* (1994). 서울: 삼성패션연구소.
- Mode & Mode 1925-1929 II* (1994). 서울: 삼성패션연구소.
- Mode & Mode 1950-1959 II* (1994). 서울: 삼성패션연구소.
- Mode & Mode 1960-1969 IV* (1994). 서울: 삼성패션연구소.
- 이경희, 정혜민(2000). "윌리엄 모리스 패턴디자인의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권 1호.
- 이연순(1996) *직물디자인*. 서울:형설출판사.
- 이화여자대학교 fashion information, Ethnic Inspiration, '89~'95 Collections. 이화여자대학교 fashion information.
- 정삼호(1996). *현대 패션 모드*. 서울:교문사.
- 차임선(1999). *텍스타일 디자인*. 서울:에경.
- Charlotte Seeling(1999). *Mode Das Jahrhundert Der Designer 1900-1999*. Koenemann, Koelin.
- Elizabeth Wilhide(1991). *William Morris:decor and design*, H.N. Abrams, New York.

23) <http://members.tripod.lycos.co.kr/sh147979/g444.htm>.

24) Linda Parry, *op. cit.*, p. 23.

- Jack Lenor Larsen(1994). *세계의 염색예술*, 김수석 역. 서울:미진사.
- Jack Lenor Laser(1976). *The Dyer's art*, New York: Van Nestrand Reinhold.
- Jennifer Harris(1998). *Textiles 5,000 Years*, New York: Harry N. Abrams.
- John Irwin and Katharine B. Brett(1970). *Origne of Chintz*,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John Gillow & Nicholas Barnard(1991). *Traditional Indian textiles*, London: Thames & Hudson.
- Joost Elffers and Susan Meller(1991). *Textile Designs*, New York: Harry N. Abrams.
- Kichang Han(1996). "Tchit, Chitte, Chintz", Paris: ENSAD.
- Linda Parry(1993). *직물미술공예운동*, 울산대학교 섬유디자인 연구실 역. 서울:경춘사.
- Max von Boehn(2000). *패션의 역사*, 이재원, 천미수 역. 서울:한길아트.
- Yuko Tanaka(1995). "A comparative study of textile production and trad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16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osei University, Tokyo*.
<http://hyuni2u.hihome.com/content1.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sh147979/g444.htm>
http://norano.co.kr/museum/pbs/present_fashion.htm
<http://www.eastheaven.co.kr/main/htm/artcollege/indoart.htm>
<http://www.fashion-a.com/html/thesis/kannj/131996.htm>
http://www.fck.or.kr/FsCollect/collection_pw_t.htm
<http://www.iht.com/IHT/FASH/96/sz0507.html>
<http://www.ourindia.com/def1.htm#chintz>
<http://www.style.com>